

# 전염성 훼브리셔스낭(감보로)병과

## 전염성 기관지염

“감보로병 역시  
전염성기관지염과 함께  
산란계에 발병하면  
생산성이 저하된다”

번역 :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기획실

### 1. 전염성 훼브리셔스낭병 (IBD)

IBD(감보로병)는 1962년 처음 발견 됐으며, 현재 중동에 넓게 퍼져있다.

이 질병은 4~6주령의 유추에서 발생되며 폐사율은 10~15%이다. 또한 이 병은 9~11주령에서도 발생하며 산란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질병은 항상 수양성 설사를 분비하므로 항문 주위의 깃털이 딱딱하게 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 해지며, 식욕이 떨어져 결국은 쇠약해 진다. 또한 이 병은 신경계에도 증후를 가져온다.

이병의 병변은 신장안에 과도한 요산염이 생성되고 훼브리셔스낭이 종창하며 근육에 출혈이 생기는 것이다.

IBD는 4~6주령 사이에 감염발병했을 때는 그 임상증상이 뉴캣슬병(ND)과 대단히 흡사하다. 그러나 감염된 후 1~2주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IBD는 이병 자체만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으며

실질적인 문제는 이 병에 감염되면 병아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인 훼브리셔스낭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것이며 이 결과 면역의 억제효과를 가져오고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액성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며 특히 평소에는 발병하지 않던 질병 즉 괴저성 피부염, 전염성빈혈, 간염, 그리고 포자충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여러가지 감보로 백신은 조심스럽게 사용할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생독백신은 약간의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모계로부터 받은 이행항체와 후속적인 예방접종은 이 병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합한 백신의 선택은 이행항체와 후속적 예방접종에 따라서 결정 하여야 한다. IBD 백신은 육계든 산란계든 10~14일령에 접종한다.

### 2. 전염성기관지염 (IB)

IB는 ND와 같이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4~5

주령의 유추에 영향을 준다.

IBD, ND, IB의 유사점은 갑자기 발병 하는것이다. 그러나 IB는 합병증의 요소 즉 다른질병, 스트레스가 없는한 폐사율은 그렇게 높지않다.

IB가 유추에 전염됐을 경우 감염된 닭의 20%는 난소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IB 발병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눈물젖은눈, 비루, 호흡이 가쁘며, 숨소리가 요란하고 원기가 소실된다. 특히 스트레스와 비위생적인 상황 하에서는 만성호흡기병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성계의 경우 호흡기에 약간의 곤란을 가져올 뿐 폐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질병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감염 3~4일이 지나면 달걀생산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달걀의 질이 저하되고 원래의 산란율로의 회복이 어렵다.

IB에 대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IB 질병이 회복된 닭일지라도 3~4주동안 바이러스를 배설한다. 따라서 사람이나 사료에 의하여 다른 계사나 농장으로 퍼질 수 있다.

IB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은 예방접종과 철저한 위생관리 그리고 소독을 잘하는 것이다.

IB백신을 접종한 보계의 병아리는 항체를 이

행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세추세스와 코네티컷형의 백신이 많이 사용된다. 점안, 점비 또는 분무에 의한 백신접종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대량접종을 위하여 음수투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육계는 10~14일령에 접종하며, 산란계는 21~28일령에 접종하고 13~14주령에 재접종한다.

열대지방에서는 여러가지 혈청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결과도 잘 알리지 않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마세추세스혈청형에서 면역원성이 변이된 변이주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육계에서는 IB와 대장균이 중복감염 됐을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산란계에서의 발병은 주로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에만 그친다. 양계업자는 육계도 더 많은 항체를 얻고 충분한 항체를 주기 위하여 재접종 할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어야한다. 더 나아가 종계업자와 육계업자는 효과적인 예방접종과 백신에 의한 항체생성의 유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주까지는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13주~14주령에 재접종 하여야한다. ■

참고 : 「Poultry」 85. 5

## 알림

「월간양계」에 게재될 생활수기를 모집합니다.

자격 : 축산업계 종사자 전원(남·녀)

내용 : 축산업계 근무경험 중심으로

기간 : 매월 20일까지 매수 제한없음.

※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간양계 편집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TEL. 752-3571 ~2